

한우리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회복함으로

-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는 가정을 이룹시다.
- 사랑이 넘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 세대 간의 단절을 예방합시다.

† 가정예배 순서 †

- ➡ 시작하며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엄마 아빠에게, 자녀에게
- ➡ 감 사 한 주간 감사했던 것을 하나씩 말해 보아요.
- ➡ 기 도 돌아가며 한 문장씩 기도하고,
마지막은 부모님이 기도해요.
- ➡ 찬 양 502장 빛의 사자들이어
- ➡ 말 씀 사도행전 19:23-41
- ➡ 실 천 한 주일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정해요.
- ➡ 기 도 기도제목을 나누어요.
기도제목과 실천하기로 한 것을 기도해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요.(마침)
- ➡ 마 치 며 예배 후 느낀 점을 나눠요.

† 말씀 및 찬양 †

➡ 말씀 : 사도행전 19:23-41

온 가족이 각자의 성경을 펼쳐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요.

1. 핵심구절을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19:23

.....

오늘의 핵심구절은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친구가 있는 다른 동네나 다른 도시에 놀러간 적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동네나 도시는 어디인가요? 특히 어떤 모습이 기억에 남나요? 아름다운 공원? 멋진 빌딩? 맛있는 음식? 아니면 그 거리에 있던 사람들? 오늘은 바울 선생님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방문한 잊지 못할 도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말씀 나누기 †

2. 말씀을 들어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테와 에라스도와 함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을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 갈라디아, 브루기아를 거쳐 에베소, 드로아, 밀레도, 가이사라까지 많은 도시를 다녔어요.

바울 선생님이 다녔던 도시 중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에베소예요. 3년 동안 떠난 전도 여행 중에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도시 중 아주 큰 도시였어요. 머무는 사람, 다니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사람이 많았어요. 장사도 잘되었고요. 신전도 많았어요. 이런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면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전파될 걸 바울 선생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지루해 하며 잠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부리는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술 책을 모두 불태웠어요(행 19:17-20). 더 이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은 아주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에베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큰 도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나요? 가족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을 위해 기도해요.

3. 함께 나눠요.

1. 기억에 남는 도시나 마을을 돌아가며 이야기해 보세요.
2.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를 위한 기도제목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 사람이 말하면 온 가족이 “꼭 그렇게 될 거야!”라고 격려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정해요.

.....

.....